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1. 15.(수) 11:00 < 11.16.(목) 조간 > 배포 2023. 11. 15.(수)

원전 중소·중견기업, 힘찬 수출 첫걸음 내딛어

- 원전 수출 유망기업 13개사, '27년까지 총 5,300억 원 규모 원전설비 수출 도전
- 시장조사부터 수출전략 수립, 마케팅, 계약체결까지 수출 전(全)주기 통합(패키지) 지원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올해에 신설된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원전 중소·중견기업 13개사가 2027년까지 총 5,300억 원 규모의 원전설비 수출에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 15.(수), 대한상의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선정기업 13개사 대표와 원전수출산업협회, 한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원자력협력재단 등 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하였다.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 신설된 사업이다. 지난 9월 참여기업 모집공고 이후, 총 32개의 기업이 지원하였으며, 2.5:1의 경쟁률을 뚫고 가격·품질·납기, 삼박자 경쟁력을 모두 갖춘 수출 유망기업 13개사를 최종 선정하였다. 주요 선정기업으로는 국내 최대의 산업용 밸브 전문기업인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국내 최초로 고주파벤딩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배관 제작기업 성일에스아이엠, 다수의 국내 원전에 보조기기를 납품한 비에이치아이 등이다.

이날 행사에서 원전수출산업협회, 한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원자력협력재단 등 5개 수출 지원기관은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 같은 기관들은 시장조사부터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납품까지 수출 전 주기에 걸쳐 30개 지원사업을 통합(패키지)으로 최대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하였다. 여러 기관이 각자 운영해온 수출지원 사업을 통합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사업과 차별화되며, 지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수출산업협회와 관련 기관은 이 프로그램을 전담 관리하는 '원전수출지원센터' 설치, 기관별 수출전담관 지정, 지원기관 간 정례회의 개최(월 1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조기에 첫 수출 성과를 새로 마련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신규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도 성장 잠재력이 큰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언급하며,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원기관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	책임자	과 장	문준선 (044-203-5280)
		담당자	사무관	조기훈 (044-203-528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발대식 행사 개요**

1.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1.15(수), 14:00~15:00, 대한상의 중회의실A(B2층)

○ **참석자** : 총 21명

-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원전수출협력과장, 담당 사무관
- **(기업)** 대동메탈공업, 비앤에프테크놀로지, 비에이치아이, 성일에스아이엠, 안국엔지니어링, 앰엔디, 영풍산업, 우리기술, 유저스, 이투에스, 일신이디아이, 페이브텍,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13개)
- **(지원기관)** 원전수출협회, 한수원, 무보, KOTRA, 원자력협력재단 (5개)

○ **주요내용** : 지원기관간 협약식, 선정기업 단체사진 촬영, 업계 간담회

2. 상세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 ~ 14:03	3′	지원기관 협약식	-
14:03~14:05	2′	선정기업 단체사진 촬영	-
14:05~14:08	3′	모두발언	산업부
14:08 ~ 14:58	50′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운영계획 설명	협회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
14:58 ~ 15:00	2′	마무리발언	산업부

* 모두발언까지 공개

참고 2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 가나다 順

구분	기업명	설립연도	소재지	업종	수출품목
1	대동메탈공업	'93	부산	기계	터빈·발전기용 베어링
2	비앤에프 테크놀로지	'00	대전	기계	제어 및 감시 시스템
3	비에이치아이	'98	경남	기계	복수기, 열교환기, 격납건물 철판
4	성일에스 아이엠	'78	부산	기계	공장가공배관
5	안국 엔지니어링	'91	서울	기계	가스소화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6	엠앤디	'00	서울	기계	액체필터 교체 자동화 로봇
7	영풍산업	'00	부산	기계	수중점검 로봇
8	우리기술	'93	서울	계측	분산제어시스템, 발전소 경보설비
9	유저스	'05	대전	계측	반응도계산기
10	이투에스	'93	경기	전기	발전기 여자시스템 모의진단장치
11	일신이디아이	'93	경북	전기	무선통신시스템
12	페이브텍	'05	경기	기계	원격제어 용접 로봇
13	피케이밸브앤 엔지니어링	'46	경남	기계	발전소용 밸브

참고 3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지원사업 리스트

○ 5개 기관 30개 지원사업, 1社당 최대 5년간 약 20억원 규모
- **(지원분야별)** 마케팅 14개, 인증·등록 6개, 금융 3개, 기타 7개
- **(지원방식별)** 전용 지원사업 15개, 연계 지원사업 15개
  * (전용)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지원, (연계) 신청시, 가점부여·한도상향·우대혜택 등 제공

분야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관	지원방식	
					전용	연계
마케팅	컨설팅	수출 포트폴리오 구축	최대 1,000만원	KNA	○	
		유망기업 컨설팅 지원	최대 1,000만원	KONICOF		○
		원자력기술수출단 교육	무역 실무 교육	KONICOF	○	
		해외시장 품질요건 컨설팅	최대 5,000만원	KNA	○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개척단	바이어 발굴 및 1:1 매칭	한수원		○
		원전 기자재 수출 특화사업		KOTRA	○	
	해외 전시	원전기업 전시 참가	최대 1,000만원	KNA	○	
		해외 전시 참가 지원	최대 800만원	한수원		○
		해외공동전시회 지원	전시부스 설치 (3,000만원 상당)	KONICOF		○
	시장 조사	맞춤형 원전수출정보지원	기업별 해외시장정보 제공	KNA	○	
		해외입찰 정보 분석·제공	기업별 입찰정보 제공	KNA	○	
		원전 기자재 수출 중점무역관	기업별 해외정보 제공	KOTRA		○
	홍보물	홍보자료 제작지원	최대 500만원	KNA	○	
		방사선기업 해외홍보물개발	최대 500만원	KONICOF	○	
인증·등록	비용 지원	유자격공급사 등록	지원사업 / 유자격 공급사 / KEPIC 인증 / 해외 인증 지원금액 – 취득비: 전액 / 전액 / 전액 지원금액 – 컨설팅: 5백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기업별 지원금 상한액(연간): 1억원(ASME 해외인증 1.5억원)	한수원		○
		국내인증 취득		한수원		○
		국제인증 취득		한수원		○
		국내·외 인증 취득·컨설팅	최대 3,000만원	KNA	○	
		AEO 인증 취득	최대 3,700만원	한수원		○
		방사선기업 해외인증	최대 800만원	KONICOF		○
금융	융자	원전기업 융자(가칭)	미정 ('24년 신규 제도 신설 예정)	-		○
	보증	원전기업 수출보증	한도 최대 30억원 추가, 보험료 10% 할인	서울보증	○	
		원전기업 수출보증보험(가칭)	미정 ('24년 신규 제도 신설 예정)	무보		○
기타	바우처	수출기업 수요맞춤형 지원	최대 1,500만원	한수원, KOTRA		○
	시범사용	발주처 기자재 시범사용 지원	최대 1,600만원	한수원		○
	통·번역	통·번역 및 공증지원	최대 300만원	KNA	○	
	법률 지원	법률, 보험 지원사업	최대 640만원	한수원		○
		법률자문	최대 300만원	KNA	○	
	지원 체계	원전수출지원센터	-	KNA	○	
		원전수출 중점무역관	-	KOTRA	○	

※ 상기 지원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금융분야는 기업 신용도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융자, 수출보증보험은 `24년 신규사업 신설 추진 중으로, 신설시 활용 가능